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길고 긴 수난의 여정 끝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 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후에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십시오.

오늘 세례받고(김지현) 입교한 이(김서현)의 일생동안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배 후 교육관에서 3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푸른 언덕> 특별호를 위한 간담회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제28회 서울연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연회교회에서 열립니다. 특히 화요일 저녁은 연회 환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환경선교의 밤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성서학당이 4월 3일부터 열립니다. 이번에는 김기석 목사님과 전성은 선생(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김재홍 목사의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30)일 오후 2시에 김철수 장로님 은퇴 및 김인걸 장로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새 교우 가정을 중심으로 한 봄철 심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결혼한 조현권/박아영 씨가 떡과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 시대의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생명의 주 하나님,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현존,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날은 진실로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곁에 다가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미움과 시기,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도 덩달아 거칠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평화의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신비를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준호 곽혜자 김필순 김혜권 박병구 배근수
 김금순 배상순 권호천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정완수 김재광
 전월수 문복순 최현선 김훈동 장성호 조문규 진정숙 권미숙 오미래
 허호범

월정헌금:

김 극 김남종 오복순 김미순 김윤정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정애
 문금석 송임희 유증희 이재문 이정은 이유선 방극숙 전영규 김경수
 김수진 김승현 윤여민 임보람 박범희 박미영 이해동 김용태 박정숙
 김영순

감사헌금:

문홍일 김정애 하은주 오광자 권미숙 오정숙 고재중 정현창 하재두
 김훈동 유경순 오래된 미래 무명5

생일감사헌금: 김현영 오송경

100주년 기념헌금 :

김영한 이희균 김정자 박병구 김용길 최영혜 왕성환 강순배 무명3
 (100주년 헌금 누계 : 167,335,000원)

	장혜숙	장혜숙	김정섭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미순
	임정자	임정자	교회	이은옥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조병주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김정애
	최숙화	권미정	교회	김재광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교회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교회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유혜경	배삼순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임창선

부활절의 기쁨으로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간혀 있던/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 들고/당신을 뵈오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멀리 치워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당신을 반기며/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살아 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소리로/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치오리니.....(이해인)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꽃 진 자리에 맺히는 열매
처럼, 시련과 아픔을 사랑과 평화의 열매로 바꾸는 신앙의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 마음이 든든합
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나날 가운
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진 희망의 징조인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가 곧 하나
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부활 소식 전하기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 / 황경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문영혜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하늘을 담은 호수

저녁과 밤이 고요하고 쓸쓸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숲과 사막과 바다와 별이 빛나는 하늘도 묵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온 누리가 묵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까치와 물고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이다. 새벽녘에 노래를 부르는 동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며, 화산과 구름과 나무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상만물은 낭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한다. 컷가에 울려오는 음악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길거리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편지마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은 쓰고 있다. 휘트먼의 말투를 빌어 말하자면 푸르른 나뭇잎은 한쪽 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향기로운 손수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도록 일부러 나뭇잎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성인(聖人)이란 이런 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낙원에서 아담은 이런 눈으로 자연을 보았고, 시인과 예술가들도 아담과 성인들처럼 흔히 이와 비슷하게 자연을 바라본다.

우리는 자연만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며,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 것이다. 삼라만상은 그분의 사랑의 불꽃이며, 모든 자연은 사랑의 촛불을 밝히도록 사랑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에 의해 훤히 타오르고 있다. 이것이 만물의 ‘존재이유’이며 유일한 의미인 것이다. 세상만물은 우리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촛불을 밝혀줌으로써 가장 완전한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을 주게 된다.

자연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빛이 반영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고요한 호수의 푸른 물결이 그분의 거룩한 빛을 비춰준다. 세상만물의 가장 작은 조각마다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모든 원자 속에 삼위일체의 거룩한 형상이 성스럽게 모셔져 있으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슴푸레 어려 있다. 그리고, 오 하나님, 삼라만상이 우리를 떨듯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의 이 육신 전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내 몸뚱이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세포가 모두 다 창조주를 찬미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선언한다. 물총새는 물고기를 잡도록 만들어졌고, 봉봉 우는 벌새는 꽃의 꿀을 빨도록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기관 모든 부분에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영혼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계시며, 사람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 존재를 향유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요한 호수가 하늘만을 비추듯이, 사람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상 이외의 어떤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거울처럼 고요한 호수에 하늘이 담기듯이 하나님의 모습은 고독과 평화 속에 모습을 나타내신다. 영혼이 평온을 되찾고 순수해졌을 때, 영혼의 표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 얼굴은 사람의 아들이며, 베로니카의 헝겊에 새겨져 남아 있는 바로 그 얼굴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 어슴푸레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 얼굴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결국 돌아가도록 창조된, 그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들이다. 물결은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서도 하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